

“글로벌 박람회 발판 삼아 미래교육 이끌어 갈 것”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취임 2주년 기자회견

AI·지능형 과학실 연계 ‘2030교실’ 학생수당 내년 전 시군 월 10만원 조직개편 중단했지만 현장 지원

“글로벌 미래교육 박람회 성과를 토대로 변방으로 불리던 전남교육을 대한민국 대표 K-에듀의 선두주자로 발돋움시켰습니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이 지난 임기 동안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고, 지역소멸에 대응한 미래형 교육 정책의 청사진을 공개했다.

●성과와 한계

김 교육감은 2일 오전 전남도교육청 2층 대회의실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많은 분들의 걱정과 비판을 재직삼아 전남교육 대전환을 위한 몇 가지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냈다”며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우선 김 교육감은 학생들의 사고력 함양을 위한 ‘자기 주도적 맞춤형 교육’을

실현했다고 했다. 그 일환으로 △책으로 여는 아침 △학생 주도성 키움 수업 나눔 활동 △학교를 실현하는 공존교실 △AI 맞춤형 온라인 학습콘텐츠 등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지역과 협력해 공생의 교육생태계를 구축한 점도 성과로 꼽았다. 김 교육감은 △전남 민관산학 교육협력위원회 △전남학생교육수당 △진로진학상담센터 등을 운영해 7개 시군이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으로 선정되는 결과를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Hello, e-Friends’ 온라인 교류 △전남국제직업고등학교(가칭) 설립 준비 △전국 최초 다문화인재전형 신설 등을 통해 글로벌 교육을 강화했다고도 덧붙였다.

다만, 2024 글로벌 미래교육 박람회(글로벌 박람회)에 대한 부정 평가와 조직개편 중단은 한계로 남았다.

지난 5월29일~6월2일 개최된 글로벌 박람회는 학생과 교직원의 무리한 동원, 165억원에 달하는 예산 집행 적절성 등이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글로벌 박람회가 지속되면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며 “학생 동원과 예산 적절성 등에 대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이를 내부적으로 엄정히 평가해 백서에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현장소통 부족으로 인해 조직개편이 중단됐다”며 “기존 조

직개편 내용 중 조례 제정이 불필요한 80%가량의 현장 지원은 그대로 진행하기로 결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월 도교육청은 학생과 교육 현장 지원을 목적으로 본청에 기획조정관 설치, 고교 사무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조직 개편을 시행하려다 교육 관련 노조의 반발에 부딪혀 중단한 바 있다.

●미래교육 실현 정책 구상

김 교육감은 향후 교실과 학교가 교육 활동에 전념하도록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계획도 발표했다.

우선 김 교육감은 “글로벌 미래교육 박람회에서 구현했던 미래교실 ‘2030교실’을 바탕으로 교육수업 대전환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2030교실’을 2025년부터 기존 AI교실·지능형 과학실 등과 연계·통합하는 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교사가 수업에 집중하도록 교육청 정책사업 정비와 학교 감사 시스템 개선으로 업무를 경감하고, JNE챗봇 도입과 업무DB를 고도화해 업무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학교기본운영비 확대와 학

급운영비 연차별 증액으로 자율성을 강화한다.

아이 키우기 좋은 전남교육 실현을 위한 ‘공생’ 교육정책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전남학생교육수당’의 2024년 지급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 2025년부터는 매월 10만 원씩 전남 22개 시·군 전 지역 동일한 금액으로 중학생까지 지급하는 안을 지자체 및 정부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글로벌 교육’ 정책으로는 전남(의)교육, 프로젝트형 생태프로그램 등 전남의 정체성에 기반한 교육모델을 추진한다. 또 글로벌 진로진학 멘토링과 해외 진로체험 등을 지속 확대하고, 지역 특성 및 산업과 연계한 전남형 교육발전특구 운영으로 ‘지역 중심 글로벌교육’ 모델을 구체화한다.

김 교육감은 “우리에게 닮진 학령인구 감소, 기후변화 위기 및 교육격차 문제도 공생의 가치를 인식하고 실천할 때 해결할 수 있다”며 “인간과 자연의 공생, AI와 공생, 지역을 살리는 로컬공생으로 전남의 아이들을 미래의 인재로 키워 내겠다”고 다짐했다.

강주비 기자

“인증샷 핫플’ 백운광장서 놀고 커피쿠폰 받자”

14일까지 인터랙티브 이벤트 체험사진 추첨해 200명 선발

최근 인증샷 명소로 급부상한 광주 남구 백운광장에서 신개념 놀이터인 인터랙티브 체험 이벤트가 펼쳐진다.

2일 광주 남구에 따르면 백운광장 미디어월 인터랙티브 콘텐츠 체험 이벤트가 오는 14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인터랙티브는 디지털 융복합 기술로 창조한 가상 인물과 상호 작용하는 콘텐츠로, 어린이를 비롯해 MZ세대부터 고령의 이용객까지 누구나 손쉽게 증강 현실을 체험할 수 있다.

남구는 백운광장 일대 활성화를 위해 올해 푸른길 브릿지 위에 인터랙티브 콘텐츠 체험 공간을 마련했다.

푸른길을 누비는 천사 및 배우 김영호 씨와 함께하는 푸른길 음악단 버스킹, 백

운 호랑이와의 산책, 댄싱 크루 질주와 춤추기 등 6종류의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

이벤트 참여는 푸른길 브릿지 위에 마련된 인터랙티브 콘텐츠 체험존에서 남구청 정문에 있는 미디어월을 바라본 뒤 하트 제스처와 함께 콘텐츠를 체험하는 사진을 담아 네이버 폼(https://naver.me/FvFZMYDT)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인터랙티브 콘텐츠 체험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 사이 매 시각 10분과 30분, 50분마다 가능하다.

매 시각 10분에는 백운 호랑이와의 산책과 남구한 컷, 내 마음속의 천사 콘텐츠를 만날 수 있고 30분에는 백운 호랑이와의 산책과 내 마음속의 천사, 댄싱 크루 질주와 춤추기 편을 즐길 수 있다. 50분에는 백운 호랑이와의 산책을 비롯해 푸른길



북구, 드림가족에 배부할 목욕용품 포장 광주 북구 아동청소년과 직원들이 2일 북구청 복지누리동에서 여름철 개인 위생관리와 각종 유행성 감염병 예방을 위해 관내 드림가족 210세대에 배부할 샴푸, 바디워시 등의 목욕용품을 포장하고 있다. 나한호 기자

음악단, 사각사각 백운광장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다.

이벤트 당첨자는 오는 17일 남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무작위 추첨을 통

해 선발된 200명에 모바일 커피 쿠폰 1만 원을 증정할 예정이다. 박찬 기자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전문기업/전기공사업

태양광 발전소 분양·매매!!

- ✓ 100% 시공계약이행보증
- ✓ 분양, 시공, 인허가 토탈컨설팅!!
- ✓ 안정된 연금식 노후 보장
- ✓ 맞춤형 발전소 가능
- ✓ 투명하고 합리적인 분양가

태양광발전소 시공/유지/보수관리 **문암(주)** 광주광역시 광산구 진곡산단중앙로 274 TEL:062)714-3471 FAX:062)714-3472

전국 총판/대리점 및 영업사원 모집

파크골프 100만 시대, 국내 최고 파크골프채 생산 브랜드 뉴월드파크골프와 함께 할 파트너를 찾습니다.

1. 총판/대리점 : 파크골프 관련업체 종사자 우대 (각 지역 전체)
2. 영업사원 : 파크골프채 판매에 관심있는 분 (차량 소지자 우대)
3. 판매 품명 : 파크골프채, 파크골프용품
4. 대표전화 : 1551-7150, 010-3509-4191
5. 본사주소 : 경북 고령군 개진면 치산길 26 (보경잔디농장내) 생산공장 : 경북 고령군 성산면 삼대길 22

NEW WORLD PARK GOLF 뉴월드파크골프